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2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누가복음 15장 11-32절

설교제목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상속을 요구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상속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상속 분을 내어줍니다. 자신 몫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뒤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 유대인들이 꺼리는 불결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도 돌아가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자식을 아들로 다시 받아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저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 살게 해주시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추한 자신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보고,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만찬을 베풁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환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완전한 관계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심통을 부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고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는 말로 설득합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대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우선 둘째 아들을 옛 아담적 존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죄된 인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환영해 주신다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자와 설교자들의 관심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 진짜 탕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있었으나 전혀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첫째 아들 또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가 탕자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누가 탕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실은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행동은 무척이나 이상합니다. 우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인식하고,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는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와 수치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불받아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은 단지 한 가문의 수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마을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가 마을에 다시 출현하면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발 앞에 그릇을 놓고, 깨뜨리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더 이상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문과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는 단호한 응징을 하는 것이 고대중동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이러한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보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되면 아들은 추방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아들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내달린 것입니다. 이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대신 한없는 환대를 택한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있어 우리 편의 회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받아주심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회개보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자신을 떠난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에 대하여 마땅한 심판 대신에 한없이 받아주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력으로 뛰어오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성육신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요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동기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결과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달려오셔서, 죄인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받아주심 즉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성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탕자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 2) 탕자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두 가지 해석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맞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탕자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나, 집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라기 보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